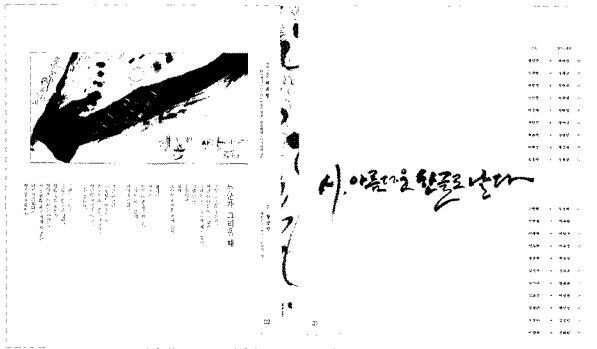


문화의 달 10월, 한글관련 행사 풍성

문화의 달과 한글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회 및 축제가 열렸다. 특히 올해는 출판관련 행사 뿐 아니라 한글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본지에서는 10월 각 지역에서 열렸던 한글관련 행사를 정리해본다.

시, 아름다운 한글로 날다 전



한화와 서울 중구문화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한화빌딩 본사 사옥앞 한빛미디어 공원에서 청계천 문화예술마당 기획전시 <시, 아름다운 한글로 날다> 전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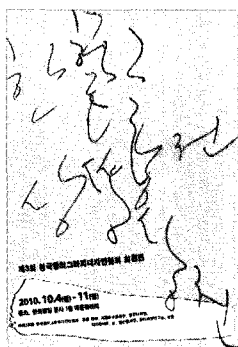
참여작가는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한국여성문예원, 코리안재즈오케스트라, 사물놀이팀 등이다.

캘리그래피 20인과 20인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시와 캘리그래피가 접목되어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계천예술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10월 7일 캘리그래피 작품전시, 한글영상쇼(타이포놀이)를 비롯해 코리안 재즈오케스트라, 초대가수 공연, 국악공연, 클래식공연, 재즈공연, 시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3회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전, 한글 상상전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한글 손글씨 글꼴전을 한화본사 1층 예문갤러리에서 열었다.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한화, 서울중구문화원, 월간디자인, 디자인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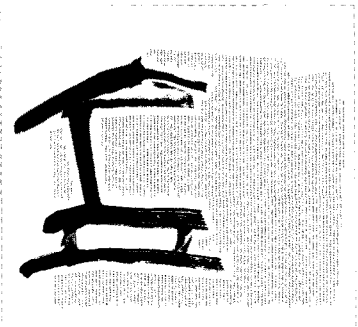
g, 월간팝사인,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후원으로 진행됐다.

제3회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전, 한글 상상전은 한글 상상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손글씨 서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한글을 상상해 보며 새로운 기법으로 한글 쓰기와 만들기를 표현했다.

홈페이지 : <http://www.kcda.kr>

<전시, 한글의 일상>전

김종건, 이용제, 그룹<한글+>는 지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타이포그래피 공간 히움에서 <전시, 한글의 일상>전을 개최했다.



<한글의 일상>전

시는 글자가, 한글이 일상에 있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김종건과 이용제의 생각이 담긴 전시다. 이용제씨는 “한글은 산소다. 너무나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느끼는 못하는 대상이다. 그나마 한글날이 다가오면 한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참여한 <한글+>는 계원디자인예술대학 한글 타이포그래피 트랙의 학생이다.

산돌, 한글 피어나다 행사 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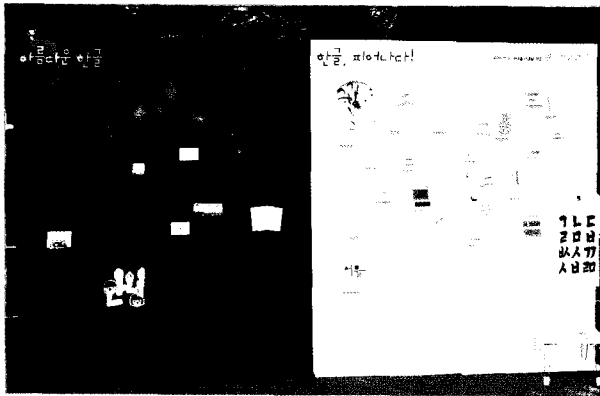
(주)산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석금호)은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제 564돌 한글날을 기념해 ‘2010 한글 피어나다’ 행사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제 4회를 맞이하게 된 '한글 피어나다' 행사에서는 한글이 문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상품으로서도 훌륭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글을 활용한 상품전시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잊혀져가고 있는 순 우리말들도 소개하는 ‘우리말 피어나다’라는 코너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산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10월 22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슬기와민과 함께 서울대학교 MoA 미술관에서 네덜란드 출신 활자 디자이너인 마르틴 마요르(Martin Major)를 초빙해 ‘활자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포럼을 진행했다.

마르틴 마요르(Martin Major)는 30년간 활자 디자인의 연륜을 가진 중견 디자이너로서 스칼라체, 텔레폰트체, 세리아체, 넥서스체를 디자인했으며 특히 90년대에 개발된 스칼라체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제18회 한글글꼴공모전 시상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박종국)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 제18회 한글글꼴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세종대왕기념관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한글의 다양한 개발을 촉진하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서 세종대왕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제목용글꼴로 박정현(프리랜서 디자이너)씨가 수상했다. 으뜸상(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상)에는 디자인글꼴로 권태원(한경대학교 3학년)씨와, 이경진(호서대학교 2학년)씨가, 으뜸상(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상)에는 제목용글꼴로 조남이(남이기획 편집디자이너)씨가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암종 교수는 “올해 출품된 175점의 작품을 심사한 결과 예전보다 적은 출품수에도 불구하고 특색있는 작품이 선보였다. 특히 본상에 오른 작품은 새로운 컨셉으로 개성이 잘 표출된 작품들로서 개성이 넘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1등 세종대왕상에는 300만원과 상품이, 2등 으뜸상에는 각 100만원과 상품이, 3등 버금상에는 각 50만원과 상품이 주어졌다. 모든 수상작품은 오는 11월 7일까지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전시된다.



한글 문화상품 ·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같은 날 제6회 한글 문화상품 ·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했다.

<완성품 부문>에는 세종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전재현씨의 <이름무늬>가, 으뜸상에는 조영주씨의 <한글을 입체화시킨 가방>과 조혜정/배경옥씨의 <한글칠교놀이 2011>가 수상했다.

버금상은 김소예씨의 <한글 ‘복’ 머플러>, 송경연씨의 <당신의 한글 띠는 무엇입니까>, 김길수씨의 <시계, 연필꽂이, 쌍합, 명함집>이 차지했다.

<렌더링 부문> 으뜸상에 전지윤/서준이씨의 <따뜻한 한글 한잔(한글모양티백)>이, 버금상에는 김미정씨의 <우산 위에 한글 비, 내리다>, 우은영씨의 <한글 조형벤치>, 이윤희씨의 <한글 스티커문신>이 수상했다. 으뜸상에는 김대용씨의 <한글 가로등>, 이종화씨의 <한글의 자취>, 하성희씨의 <우리말을 담는 그릇>, 백진희씨의 <선글라스에 우리정서를 붙여넣다>, 윤덕현씨의 <한글 주전자>가 수상했다.

<완성품 부문> 세종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상장과 상금 500만원 및 부상이, 으뜸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 및 부상이, 버금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 및 부상이 주어졌다.

<렌더링 부문> 으뜸상에게 상장과 상금 200만원 및 부상이, 버금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 및 부상이, 으뜸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20만원 및 부상이 주어졌다. ☺

입남속 차장 sang@print.or.kr

이 글은 '한글'을 주제로 한 공모전 수상작 중 하나인 '이름무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른 수상작품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겹쳐져서 일부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나, 공모전 관련 정보임을 유추합니다.)